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7년 포어 §

다시 거룩한 교회로!
(롬1:17, 레19:2)

十 행동 지침 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조선지서 강해 - 미가서

네가지 자유를

(미가 4:1-5)

원로목사 이종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와 그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1절).

메시아가 임하시는 날 성전이 있는 모리아 산이 굳게 서고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갈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영광을 말씀합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괴로운 일도 만나고 안타까운 형편에 처하게 되기도 하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도는 마지막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1. 무지로부터의 자유

“많은 이방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와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2절).

깜깜한밤, 지식의 등불이 꺼져 동과 서를 구별하지 못하는 세상에 메시아가 오시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로 인하여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길을 몰라 다른 곳에 복이 있는 줄 알고 세상을 헤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진리의 지식을 습득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며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무지에서부터 자유하여 광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새생명을 받았고 진리의 지식을 가진 자로서 더 이상 어둠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을 다 소유했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가장 무지한 사람입니다.

2. 전쟁으로부터의 자유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3절).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서2:4과 요엘3:10 말씀과 흡사한 내용을 외치고 있습니다. 칼은 전쟁을 의미하고 보습은 평화를 말합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고 했으니 전쟁에 사용했던 도구가 밭을 갈고 추수하는 농기구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힘의 균형을 맞추면 전쟁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평화는 힘의 균형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할 때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요한 칼빈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람들이 칼과 창을 사용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신자의 수가 아직 적기 때문이다.” 인간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신자의 수가 적은 한 전쟁은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는 날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그 날에 참 평화가 옵니다.

3.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이름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4절).

각 사람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는다는 것은 먹을 것이 풍족하며 평화롭고 안전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평화와 안전도 결국 메시아가 오실 때 가능합니다.

가난이란 물질적인 가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난은 영적 파산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난으로부터의 자유란 경제적 빈곤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인생이라 먹을 것 때문에 전전긍긍한다면 예수를 믿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이들이 영원히 주리지 아니하고 기쁨속에서 평안과 안전의 삶을 살게 됩니다.

4. 공포로부터의 자유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라 하시더라”(5절).

세상에 가장 두려운 것 세가지는 어둠과 죽음과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중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재앙과 심판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보이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와 질서를 찾으면 우리에게 갱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가르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복을 받으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공 동 의 회

서울교회 정관 개정안 만장일치로 통과 서울강남노회 대응은 당회에 위임하기로

서울교회 정관 일부 개정의 건과 서울강남노회에 대한 대응의 건을 위한 공동의회가 지난 10월 15일(주일) 오후 12시 30분 본당 2층에서 열렸다. 대리당회장인 이종윤 원로목사의 사회로 개최된 이날 공동의회는 총 921명의 18세 이상된 세례교인(입교인)이 참석하였다.

공동의회에서 '서울교회 정관 개정안'은 제 3장 당회, 제 9장 목사, 장로 안식년제를 일부 수정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서울강남노회에 대한 대응의 건은 당시 있었던 일부 성도들의 의견을 포함한 일체의 대응방안을 모두 당회에 위임하기로 역시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2017 성경암송대회 은혜 중에 마치다

교회는 말씀 중심의 사도적 교회를 지향하는 서울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훈련의 일환으로 성경암송대회를 매년 10월에 개최하고 있다. 성경암송대회는 성도들의 삶에 말씀의 생활화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는 베드로전서 1장~5장까지였으며 교육1국 미취학부서는 베드로전서 1장, 취학부서는 베드로전서 1-3장으로 예선은 10월 1일(주일), 각 부서별로 진행하였으며 본선 10월 14일(토) 오후 1시 진행하였다.

심사위원으로는 교육 1국(미취학)은 장석남 목사, 오광환 장로, 교육 1국(취학)은 최근영 전도사, 최형열 장로, 교육 2-4국은 윤누가 목사, 송인권 장로가 수고하였다.

개인 5명, 단체 6개팀 33명(미취학 - 1개팀 5명, 취학 - 개인 1명, 2개팀 14명, 교육2국 2개팀 12명, 청·장년 - 개인 4명 1개팀 2명)으로 총 38명 참여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교육 1국 (18명)**
- **대상**: 서예준
- **믿음상**: 단체(유아, 유치) 김재윤, 김선후, 윤서진, 노준, 김하윤
단체(유, 초등 1) 서예준, 양다연, 조연우, 한예준, 이인애, 장유선, 장혜운
- **소망상**: 단체(유, 초등 2) 조건우, 한예승, 김서연, 최시원, 장유정, 박종환, 오유나, 정은지
- **교육 2-4국 (20명)**
- **대상**: 김진달 집사
- **믿음상**: 최정숙 집사
단체(고등부 교사) 백영자 권사, 고흥규 성도, 최복희 권사, 박신자 집사, 박은영 집사, 박혜정 집사, 박유진 집사, 이명준, 권소희 권사, 정현구 집사
- **소망상**: 김미성 권사
단체(청·장년): 김진달 집사, 정상준, 박유진 집사, 백도환 집사
- **사랑상**: 박유진 집사
단체(고등부 학생) 정은서, 장하람, 김지환, 교사들

10월 세례식 거행

서울교회 당회 주관으로 지난 10월 15일 주일 찬양예배 시 2017년 올해 세번째 세례식이 있었다. 서울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마28:18~20)는 예수님의 명령에 세례식을 거행하고 있다. 본 예식은 서울교회 3대 목표중 하나인 "천국시민양성"의 가시적 열매임과 동시에 본인에게는 신앙성장의 기회가 되므로 교구와 다락방 및 각 교회학교에서는 세례 대상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기 바란다. 사전교육 및 신청절차는 새가족위원회 세례교육부(602호)에서 담당하고 있다.

금번 세례/입교자는 다음과 같다.

- 세례자: 정경희 계 1명
- 입교자: 이정환 정은서 계 2명

금주의 사명자대회 성경통독표

10/23 (월)	요19	요20	요21	행1	행2	행3	행4	-
10/24 (화)	행5	행6	행7	행8	행9	행10	행11	-
10/25 (수)	행12	행13	행14	행15	행16	행17	행18	-
10/26 (목)	행19	행20	행21	행22	행23	행24	행25	-
10/27 (금)	행26	행27	행28	롬1	롬2	롬3	롬4	-
10/28 (토)	롬5	롬6	롬7	롬8	롬9	롬10	롬11	롬12

▲ '성경통독표는 매주 절취선대로 잘라서 본당 앞 기도신청함에 넣으면 된다.'



중·고등부 학부모 기도회

매 주일 12시 40분(2부예배 후, 504호)

중·고등부 자녀를 둔 부모님이나 자녀손(수험생, 유학, 군복무)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2017 사명자대회 대회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게 하소서



김승탁 집사 (사명자대회 기도분과장)

금년도 사명자대회의 캐치프레이즈는 “『하나님의 목회』에 부르심을 받았나이다”입니다.

느헤미야가 수일동안 슬퍼하며 무너진 예루살렘성벽을 52일만에 재건했던 것처럼 우리도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무너진 서울교회의 성벽을 새롭게 수축하는 기도를 매일 3분 이상, 50일간 진행합니다.

사명자대회 50일간 각 교구별, 다락방별, 교회학교별, 개인별로 자율기도신청서 작성을 통해 자율적으로 시간을 정해 기도하며, 또한 매일 2회씩 열심히 기도하는 다니엘기도와 각각의 기도제목을 품고 다락방 공동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스테반회와 권사회 회원은 0시~오전5시 사이에 자원하여 기도함으로써 중직 자료서의 책임을 다할 예정이며, 교회학교 유년부 이상은 교역자와 학생들이 토요일 한날을 정해 모여서 기도하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어떤 일을 행하기전

에 예수님도 항상 기도를 먼저 하셨듯이 사명자대회를 통해 무너진 서울교회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율기도신청서”에서 작성하신 기도시간은 결국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공동기도제목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열심히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에 금년도 공동기도제목을 알려드립니다.

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은 절제하면서 이웃을 돕는 하나님의 사명자되게 하옵소서.

② 서울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성경적 교회로 재건되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베푸소서.

③ 하나님에 대한 최대의 경외심과 진지한 부지런함 그리고 바른 인품과 지식을 가지고, 가르침과 권면, 경고, 치리, 용서를 하며, 우리의 구원사역을 성취하고, 신행일치의 삶의 본을 보임으로, 신뢰와 존경을 받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희생을 할 줄 아는 목자를 보내 주옵소서.

④ 서울교회가 노회와 총회 그리고 우리의 이웃·형제 교회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어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쟁의 소문이 사라지고,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이루어, 세계복음화에 머릿돌이 되게 하옵소서.

⑥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교회에 건강과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⑦ 서울교회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 당하지 않게 하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서울교회 사명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여 올해도 풍성한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다함께 기도합니다.

사명자의 기도

사명자로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송인수 집사 (스테반회 회장)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에게
참다운 삶을 일깨워 주셔서
천국을 소망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게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 되신 교회의 어려움을 보고
회복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에 순종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수시로 밀려오는 인간적 생각은 저버리고
오직 주님이 일러 주시는
길로만 갈 수 있게 하시어
그동안의 죄를 속죄케 하소서.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주님의 십자가로 가리워주소서.
거짓에 사로잡힌 자들이
입으로는 주님을 외치지만
그들의 영은 병들어 있사오니
더 이상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소서
올바른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지켜내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힘을 허락하시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것을 다짐하며,
사명자로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서울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교회로 바로 세워져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

우리의 다음 세대 믿음의 통로 되게 하소서



2018년도 대입수능자

정윤주 오원준 황수지 송윤희 하준후 김은초 서정우 이주호 신서호 공지성 최 건 류형선 김민지 조영훈 이상현 김정인 권태훈 장지윤 김현범 송인혁 백시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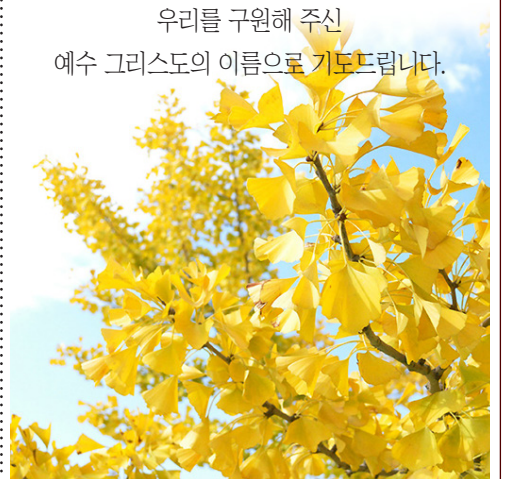
(2018년도 수능 수험생 명단)

성도님들은 수능학생 한 명, 한 명 이름을 호명하시면서 뜨겁게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도고를 원하시는 학생이 있으면 순례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자를 위한 공동 기도제목

- 1.성령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결과를 얻게 하옵소서
- 2.건강과 집중력을 주셔서 마지막을 잘 정리하게 하시고 공부한 내용들이 잘 생각하게 하옵소서
- 3.심은대로 거두는 진리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여 시험을 치르게 하옵소서
- 4.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미래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 5.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국제적인 리더들이 되게 하옵소서
- 6.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2017 성경암송대회를 마치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니이다



김진달 집사 (7교구)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교의 집에서 자란 저는 믿음의 아내와 결혼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과 접하면서도 겉으로 거룩한 척 좌측 옆구리에 성경책끼고 교회가서 예배드리고 교회 밖을 나오면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 주일을 범하며 교인의 모습은 어디가고 음주와 쾌락을 곁하여 허구한 날 살다 보니 가정과 직장 또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건강까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21년 전 백주년기념관에 근무 중에 수많은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만나 하시는 사역을 통하여 말씀의 중요함을 더 깊이 알게 되어 열심으로 신앙생활 해야겠다고 다짐하며 지내오는데 해마다 성경암송을 한다고 순례자에 실리는 것을 보고도 전 관심 밖이었습니다. 오직 세계는 말씀 읽고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이 먼저였기에 예배와 교회의 헌신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제는 주님이 항상 곁에 있다는 것이 감사하기만 하였습니다.

2006년 9월경 찬양예배시간에 이종윤 목사님께

서 설교하시던 중 모든 일에 있어서 선택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뒤 무슨 일든 하면 되는데 내 일로 미루고 게을러서 못한다는 말씀에 마음이 동하여 그해 2개월 앞두고 암송을 했는데 너무도 은혜롭고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암송한 것 중 마태복음5-7장에서 팔복과 은밀한 기도와 은밀한 구제에 관하여, 히브리서 11장 믿음을 더욱 확신하였으며, 야고보서 전장을 통해 행함이 있는 믿음과 언어조심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와 열매, 요한일서1-5장 하나님의 사랑 디모데전서 직분자의 자격과 감당해야 일들, 로마서6-10장 생명의 성령의 법 등 참으로 암송을 통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로마서12장을 암송하면서 시련과 고난, 역경 중에서도 보혜사되신 성령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마음의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며 감사, 찬미를 했습니다.

올해 베드로전서를 암송하면서 현 교회의 상황과 일치한 장이며 참으로 거룩한 삶의 연결고리가 되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었기에 암송 중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께 감사, 찬미 영광을 돌립니다.



2017 성경암송대회를 마치고

성경암송도 성경읽기도 재미있어요



서예준 (유년부)

안녕하세요, 저는 유년부 1학년 서예준입니다. 저는 올해로 3번째 성경암송대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녁에 엄마랑 성경을 읽었고, 암송을 했습니다.

대회 날짜가 다 되었을 때는 아침, 저녁으로 암송을 했습니다. 놀고 싶어서 하기 싫을 때도 있었습니다. 자고 싶는데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암송을 하는 것은 많이 힘들지 않았지만, 대회에 나가는 것이 싫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암송하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대회에 나가기가 싫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가 기도해 주고 용기를 내게 되

었습니다.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 무서웠지만, 기도하고 싸워서 이겼다고 했습니다. 순서를 기다리면서 무섭고 떨렸지만, 암송을 할 때는 신기하게 떨리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마음이 여리고 성처럼 무너졌습니다.

저는 유치부 때는 팀으로 나갔고, 다음 2번은 개인으로 나갔습니다. 개인으로 나갔을 때, 아빠는 1등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암송한 것을 발표하기만 해도 선물을 사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상을 받아서 너무 놀랐고 하나님께 감사했고 뿌듯했습니다. 상을 받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암송대회가 끝나고 엄마랑 베드로전서부터 다시 성경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읽기도 재미있습니다. 다음에도 성경암송대회에 또 나가고 싶습니다.

유·초등부 가을 성경학교

오늘, 오전 11시~오후 4시

유·초등부에서는 가을성경학교를 오늘 진행한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 말씀 프로젝트 "도전! 성경골든벨"

오늘, 중·고등부 예배후

중·고등부에서는 오늘 학생들의 신앙과 성경 지식 향상을 위해 말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도전! 성경 골든벨』을 개최한다. 중·고등부 예배 후에 열리며 범위는 베드로전서, 마가복음이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가페타운 직원채용 공고

- 채용분야: 아가페타운(호산나 대학) 건물 및 시설관리
 - 채용인원: 남자 1인
 - 지원자격: 1종 보통면허소지자. 숙직근무 가능자, 시설관리 경력자 우대
 - 근무조건 및 급여: 개별 면접 후 협의
 -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 제출처 및 문의처: 호산나대학 행정실(031-585-9184~6)
 - 제출기한: 2017년 10월 23일(월)
 - 제출방법: 이메일(csk0837@naver.com)
- 팩스: 031-584-9106

등 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세계개혁주의연합(WRF)가 독일 Wittenberg에서 개최하는 종교개혁50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참석차 10월24일 출국하여 11월8일 귀국한다.

■ 금주의 식사: 이규희 권사 가정 (범사에 감사하며) 교회제공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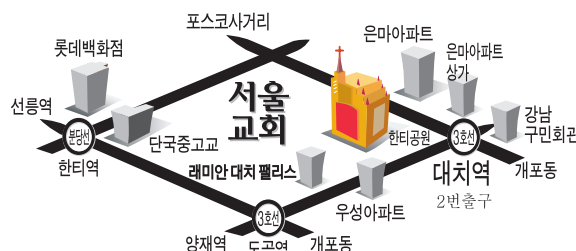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모든 성도들이 사명자대회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사명자로서의 본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2. 우리교회 다음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대입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3.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공의 위에 세워지고 이 땅에 전쟁의 위협 사라지게 하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I부예배	오전 9시
	II부예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부예배	오후 2시
	찬양예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요일예배	I부예배	오전 11시
	II부예배	오후 7시
새벽예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당 II층
금요기도회	오후 8시	본당 II층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